

“코로나·경제불황에 피해해진 민생 안정시켜달라”

지역국회의원들이 전한 추석민심 정부 민생문제 더 집중해야 극우 개천절 집회 엄벌 요구 정권 재창출 기대감도 표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추석 민심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민생 안정과 정권재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각 지역구에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지역민들을 만나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 무엇보다 지역민들은 코로나19 종식이 우선되어야 하고, 코로나로 피해해진 민생이 안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4일 “올해 한가위는 예전처럼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은 아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비대면 추석을 보냈고, 호남지역을 강타한 태풍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이번 추석 민심은 크게 민생, 방역, 외교였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역대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에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전념해달라는 말씀이 많았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마음이 매우 컸다”면서 “서해 민간인 피격사건을 정경화하려는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대한 지적과 함께 평화가 경제임을 재차 강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의원은 “추석을 계기로 정권의 재창출에 대한 관심도 함께 고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빈(광산갑) 의원은 “주민 모두 한결같이 코로나 불안을 호소했다.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려운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모르겠다는 걱정들이 많았다”며 “피해가 막심한데도 극우 보수 세력이 개천절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며 과반 의석을 만들어준 민심을 잘 헤아려 강하게 개혁을 추진해달라는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영덕(동남갑) 의원은 “모두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면서 “정부가 코로나 19 대응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생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경제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코로나가 극복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며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선별적으로 지원한 2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택시기사 등이 반겼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한 달 전 하고는 여론이 많이 달라졌고 ‘국정개혁을 잘해라’ ‘과감하게 해라’는 말들이 많았다”면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대한 불만도 컸고, 정권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지난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문문화관에서 열린 '광주시-지역국회의원 현안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행배·조오섭·이형석·이병훈 의원, 이용섭 광주시장, 송갑석·이용빈·양항자·윤영덕 의원. <광주시 제공>

정의당 강은미(비례) 의원은 “서민 대다수가 많이 힘들어 했고, 일부 수혜 지역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보상이 적어 아쉬워 하는 사람이 많았다”면서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에 장관 문제에 몰두해 정작 민생은 챙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 “민생 문제를 먼저 챙기고 코로나 19에 따른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행정통합도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광주시·전남도 상생 노력이 먼저”

이용섭 시장·광주 국회의원 만남 국비확보·군공항 이전 등 논의 구간 경제조정 방법론 놓고 이견

추석 연휴인 지난 3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광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은 이 시장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하고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면서, 현안 해결까지는 상당한 협의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날 이 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 간 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은 5가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과 자치구간 경제조정,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2021년도 주요 현안 사업 국비확보, 민간공항 통합 및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이다.

우선 이 시장의 제안으로 최근 이슈로 떠오른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일부 이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 통

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운영 발주, 여론조사 등의 향후 일정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은 ‘광주시가 통합 상대인 전남도와 협의 없이 행정 통합을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국회의원들은 시도 행정 통합 문제는 앞으로 진정성을 갖고 차분하게 전남도와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년간 진척되지 못한 자치구 간 경제 조정은 기형적인 선거구의 정상화, 자치구 간 인구 편차 조정 등을 통한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과 취지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일부 이견을 드러냈다. 기존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경제 조정을 소폭으로 할지 또는 중폭, 대폭으로 할 지에 대한 방법을 놓고 일부 국회의원들 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치구간 경제조정은 기존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광주·전남 상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의 진정성과 상생정신, 광

주·전남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전남과 큰 틀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특히 지난 2006년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이 맺은 ‘상생 협약’이 하루 빨리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06년 혁신도시 조성 당시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협약이다.

이전 후보지의 반대로 표류 중인 민간 공항 통합과 군공항 이전 문제도 광주·전남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국방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민간공항 무안 이전을 선행할 지, 군 공항과 민간공항 병행 이전을 놓고서는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공항 이전 문제의 경우 국방부와 이전 지자체의 전향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쉽게 현안 해결이 이뤄질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최권필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장·전남지사 언제 만날까

李시장 회동 정지작업 서둘러 숲지사 “행정통합 공감대 먼저” 조만간 회동 테이블 마련될 듯

광주·전남 행정통합 해결의 키를 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만남이 언제 이뤄질지 주목 받고 있다. 이 시장은 만남을 위한 정치 작업을 서두르고 있지만, 김 지사는 ‘통합 논의 전 현안에 대한 공감대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통합 논의 자체가 지역 역량을 소모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현안에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장과 지사의 만남에 대비해 논의 안건과 입장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양 시·도는 연휴가 끝나는 5일 이후 일정과 공식 안건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추석 후 만남을 약속해놓은 만큼 조만간 회동 테이블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2일 이 시장에 이어 이를 뒤 김 지사도 “추석 이후 (서로) 만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추석 이후’라는 애매한 시점 적용이 변수다. 이 시장은 조속히 김 지사를 만나 행정통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갖기를 원하지만, 김 지사의 속내는 다소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슈가 자칫 현안 논의를 흡수하면서 결국 ‘시간’만 지연될 수 있다는 고민도 내재돼 있다. 군공항 이전 등 민감한

문제가 얽히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 지역의 경우 5개 구청장 모두가 행정통합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전남은 지역에 따라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 안팎에선 상황에 따라선 이 시장과 김 지사의 회동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이 시장은 “온전한 통합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시·도민과 시·도 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과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후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개정 등 가야 할 길은 멀지만 (통합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상생이자 동반성장의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